

“마스크 투표...한국, 무엇이 가능한지 또 한번 증명”

외신들 ‘팬데믹 속 총선’ 주목
BBC “감염공포 영향 못미쳐”
블룸버그 “다른 나라 본보기”

미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가 코로나19 사태로 선거를 연기한 가운데 한국에선 예정대로 총선이 실시되며 외신들이 한국의 총선 상황에 관심을 두고 집중 보도했다.

BBC방송은 홈페이지에 한국의 총선 소식을 주요 기사로 소개하며 한국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또 유권자들은 투표장 앞에서 1m씩 떨어져 줄을 서서 차를 기다린 뒤 손 소독과 함께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체온을 측정해야만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며 꼼꼼한 방역 절차를 소개했다. 각 유권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설치한 표식에 맞춰 서서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로라 비커 BBC 한국 특파원은 일부 비평가들이 투표가 혼돈 속에 치러질지 모른다고 우려했지만 사전투표가 차분하게 치러진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또 사전투표율이 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감염 공포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BBC는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됐다는 점도 소개하면서 서울역에서 만난 이들은 투표권 행사에 모두 흥분한 듯 보였으며 세계적 대유행병도 이들을 방해하지 못했다고 묘사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선거 유세 분위기는 상당히 바뀌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선거 기간이면 시끄러운 스피커를 단 승합차가 창문 밖에서 큰 소리를 내고, 후보들과 직원들은 곳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풍경이 펼쳐지나 올해는 대규모 집회 대신 마스크를 쓴 채 먼 거리에서 유권자들과 만나고, 주먹이나 팔꿈치 인사를 약속을 대신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1월에는 경기 둔화와 일자리 창출, 북한과의 대화 교착이 정치적 대화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주를 이룬다며 코로나19가 유세 내용에 바꿨다고 보도했다.

BBC는 “이번 선거가 국내 재확산을 촉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현재로선 한국이 이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 무엇이 가능한지를 또 한 번 증명하려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한국에서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퍼진 이래 가장 큰 선거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바이러스 선거가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일부 주가 대선 후보 경선을 미루고, 프랑스는 감염자 수 폭증으로 지방선거를 미룬 상황에서 한국이 선거를 치러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15개 이상 주에서 대선 경선이 연기됐으며 프랑스는 지난달 치른 지방선거 1차 투표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자 결국 2차 투표를 미뤘다. 폴란드도 5월 10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우편투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여당이 대승하면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선거를 치를지를 고민하는 정당들에게 위협을 무릅쓰고 선거를 진행할 정치적 이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의 위기 컨설팅 전문업체인 베리스 크 메이플크로프트의 미하 흐리베르니크 아시아 리스크 분석 담당 수석은 한국 총선은 세계에 팬데믹 사태 속에 투표가 가능하며 위기에 잘 대처한 지도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했다.



코로나19로 성업중인 프랑스 관 제작회사 프랑스 파리 근교 리조랑지스의 관 제작회사에서 한 직원이 14일(현지시간) 주문서를 살펴보고 있다. 이 회사는 고객의 요구 상황에 맞춰 관을 가공 납품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하는 관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다.

트럼프, WHO 자금지원 중단...“기본책무 실패 책임 물어야”

“은폐·실책이 팬데믹 초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잘못된 대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어졌다고 전격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문제를 심각하게 잘못 대응하고 그 확산을 은폐하는데 있어 WHO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미 당국자들이 평가하는 검토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국발 입국금지 반대라는 위험하고도 대가가 큰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의) 여행 제한에 대한 WHO의 공격은 생명을 구하는 문제보다 ‘정치적 올바름’을 더 우위에 둔 처사였다며 “진실은 WHO가 적기에 그리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보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조사하고 공유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현장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들의 중국내 파견을 위해 제대로 일을 했다면, 그리고 중국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하는데 있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사망자를 매우 적은 규모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수천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매년 4억~5억 달러의 자금을 WHO에 냈는데, 중국은 대략 4000만 달러를 기여한다”는 불만도 거듭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WHO에 할당됐던 자금을 다른 국제 보건 기구에 재분배될 것이라면서, 다만 의미 있는 개혁을 위해 WHO에 계속 관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WHO 지원 중단 지시 선언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를 겨냥해 “WHO나 다른 인도주의 기구의 바이러스 퇴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전례 없는 사건이며, 이에 따른 유례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자금은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충격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WHO가 적기에 그리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보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조사하고 공유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현장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들의 중국내 파견을 위해 제대로 일을 했다면, 그리고 중국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하는데 있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사망자를 매우 적은 규모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수천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MF “올 글로벌 경제 3% 역성장”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본부에서 화상 브리핑을 통해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IMF는 올해 글로벌 경제가 3%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후생성 전문가팀

“코로나19 방치하면 85만명 중증, 42만명 사망”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일본에서 아무런 방지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병에 걸린 환자 중 85만명 정도가 위중한 상태로 발전해 절반인 42만명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이끄는 후생노동성의 전문가팀인 ‘클러스터 대책반’은 이 같은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외출 자제 요청 등을 통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이미 시행해 실제로는 추산 결과 수준의 사망자가 나온다고 볼 수 없으며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가 공개된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반에 참여하는 니시우라 히로시 훗카이도대 교수(감염증역학)는 “실제로 4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접촉을 큰 폭으로 줄이면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쿠오모 “우리엔 대통령이 있지 왕이 없다”

뉴욕 주지사, 트럼프와 충돌
트럼프, ‘반란’ 비유하며 공격

코로나19 사태로 멈춰선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를 놓고 ‘조기 정상화’를 희망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주지사들이 정면충돌했다.

경제활동 정상화 결정과 관련 “대통령의 권한은 전면적(total)”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우리엔 왕(King)이 없다”면서 정면으로 맞받아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의 공조를 ‘반란’에 비유하며 다시 반격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미 NBC방송 ‘투데이 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엔 대통령이 있지 왕이 없다”라면서 “(경국 당시) 그것은 큰 결정이었다. 우리는 왕으로부터 벗어났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있지 왕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전면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를 명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뉴욕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상화 명령을 내린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

라며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내릴 경우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법적으로 가는 헌법적 도전을 맞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트 라몬트 코네티컷 주지사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로부터의 메시지는 나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 폭탄’(verbal hand grenade)으로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방해받아서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쿠오모는 매일, 심지어 매시간 모든 것을 부박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 새로운 병동과 병상, 인공호흡기 등 (부탁한) 대부분은 주(州)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었다”면서 “나는 그를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지금 그(쿠오모)는 독립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후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일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트럼프)와 싸우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가지런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차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